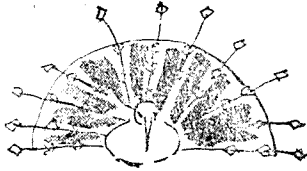


잡초와 기생충



金 容 九

잠마 끝에 줄곧 흐리던 날씨가 일요일에는 활짝 개었다.

뜨거운 해가 기울고 나무 그늘이 땅위에 길게 들 무렵에야 우리는 마당에 나갔다. 여러날 손이 가지 얇은 초목은 보기에 어지러웠다. 꽃 매무세를 고쳐주고, 풀을 깎고, 잘라낸 꽃가지랑 풀을 치우고 나서는 잡초를 뽑는데, 어린 딸이 하는 말이 —

「엄마, 잡초는 뽑아야지. 그래야, 잔디가 잘자라지. 잡초는 보면 얼른 알겠어. 벌써 이만큼 뽑았다.」
어린 것은 사뭇 신이 났다.

풀을 뽑다가 일어서는데, 감나무 아래 가지에 잘린 가지가 걸려있는게 눈에 띈다. 실은 아침 일찍 나는 감나무에 올라가 불나방에 침식된 이파리를 찼었다. 그런데, 나중에 친 가지 하나가 떨어지면서 아래 가지에 걸렸는데, 나무에서 내려와서는 얼른 보이지 않아 다른것만 거뒀다가 불을

잡혔었다. 마음에 걸리던 그 잃어버린 감나무 가지를 찾은 것이다. 불나방이 먹은 이파리 하나에는 수십, 수백 마리의 벌레가 끼어 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떨어지던 가지가 아래 가지에 걸려서, 벌레먹은 이파리가 다른 이파리에 닿아 한나절 동안에 그 이파리에도 벌레가 끼고 있었다. 잃었던 가지를 찾으니 마음이 개운했다. 나는 벌레가 옮겨간 가지도 마저 쳐냈다.

잔디가 잘 자라기 위해서는 잡초를 뽑아야 한다. 흙의 일정한 양분을 잔디와 잡초가 서로 뺏으려한다. 그래도, 이것은 풀과 풀 끼리의 생존경쟁이다. 그것은 부끄러울게 없는 당당한 대립상이다. 잡초가 제거되는것은 사람이 원치 않기 때문이다.

나무 이파리를 파먹는 불나방은 다른 애기다. 그것은 이파리에 붙어 나무에 얽혀서 산다. 제나름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기대서 남의 생활력의 덕분으로 얻어먹고 사는 것이다.

과학자에게 정의를 내리



라면, “기생자라고 하는 이상은 기생에 의존하고, 기생(寄生)의 생활력의 잉여를 이용하여 생활해 가는 것”쯤으로 풀이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사는 것도 한 가지 사는 길임에는 틀림 없다. 벌레가 나무에 얹혀 살듯.

남에게 오히려 사는 벌레를 기생충이라 한다. 그런데, 더욱 땃땃하지 못하고 비굴하며 불쌍한 것은 사람의 기생주의이다. 넉넉히 할 수 있는데도 스스로 삶의 길을 개척하지 않고 남에게 붙어 기대사는 사람은 사람은 사람이라도 기생충 밖에 되지 못한다.

(필자=한국일보 논설위원)

<토막삼식>

6 살의 女兒가 팬티에 누런 냉이 묻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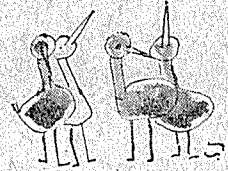
어린 소녀라도 냉이 있고, 아랫도리가 젖는 일은 흔히 있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되는 것은 어른이나 매한카치로 「트릭모나스」, 「간지다」, 세균 등을 알아 볼 필요가 있다. 또는 변검사를 하여 요충이나 회충이 있나도 알아보아야 한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약을 의사에게 처방을 받아 지어 먹어야 한다.

아랫도리는 청결해야 한다고 늘 가르쳐 주어야 하며, 손을 깨끗이 씻도록 하고, 뒤통을 보고 나서 항문쪽에서 앞쪽으로 씻지 않도록 일러 주어야 한다. 또 가렵더라도 긁거나 부스럼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어머니나 가족 중에 다른 사람이 냉이 있을 때는 먼저 그것도 조사를 해보아야 한다.

<外誌에서>

존재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 보자



박 근 자

삼라만상도 존재이유는 있다고 한다. 길의 쓸모 없어 보이는 돌 한개도있 어야 하기 때문에 그 곳에 놓여 있다고들 한다.

그렇다면 기생충 이라고 존재 이유가 없으리 없는 것이 아닐까.

의학적인 혹은 생물학적인 지식이 전무하다시피 하는 내가 기생충의 존재 이유를 더구나 알 까닭은 없으나 양약도 지나치면 해롭다는, 극약의 적당량이 양약이 되어진다는 상식에 준해 보더라도 기생충도 지나치게 많거나 그놈이 자기신분을 망각하고 주제넘게 팔기질때 인체에 해를 가겨오지만, 그 「적당량」이라는 한계와 올바른 길만 찾아, 다시말해 막혀서 고생하던 내부의 통로를 풀어 준다면카 하는 혹은, 그들의 배설물이 어떤 작용으로 꼭 약이 되어지는 그런 상태